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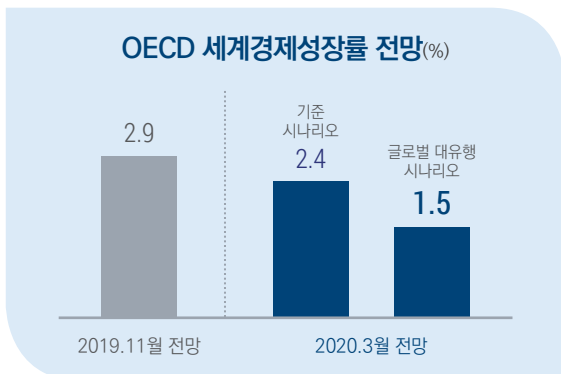
2020 경제전망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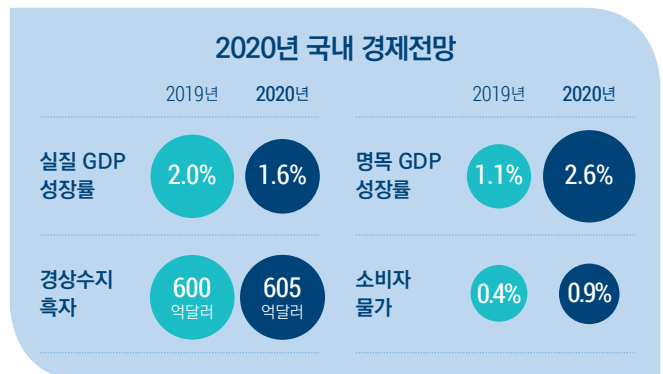
“ 2020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되며 지난해보다 낮은 1.6% 성장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소비여력이 악화되면서 부진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교역 위축으로 재화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서비스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경제는 경제활력이 저하된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유연성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19가 촉발한 위험요인에 적절히 대응함과 동시에 대내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2020 경제전망」은 대내외 경제여건 분석,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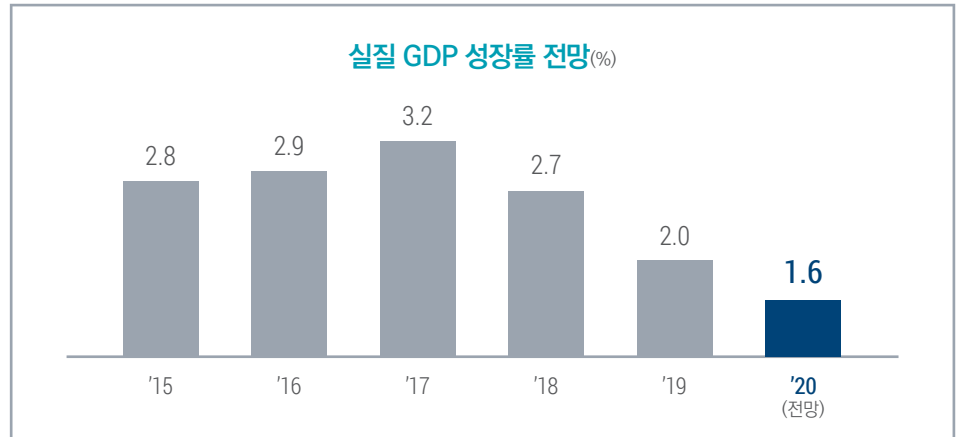
주: 기준 시나리오는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에 국한, 2/4분기 경기회복 가정



I.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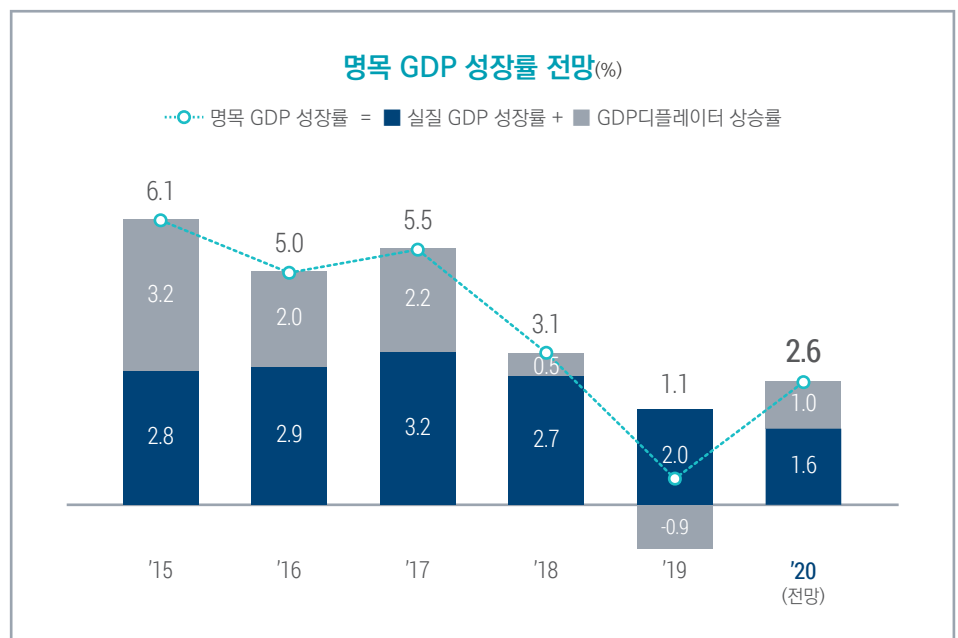
1.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 2020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부진하여 연간 1.6% 성장할 전망
- 실질GDP성장률에 대한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는 정부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지난해보다 높아지는 반면 순수출(수출-수입)은 낮아질 전망



2.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 2020년 명목GDP성장률은 실질GDP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19년(1.1%) 보다 높은 연간 2.6%를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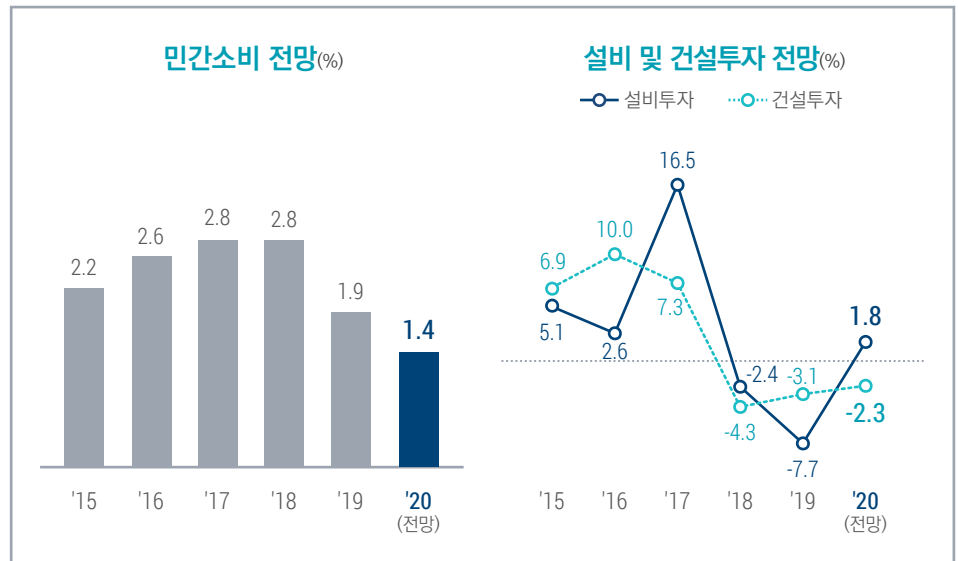


*GDP디플레이터는 실제적인 국민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소득을 추계하여 사후에 계산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로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 (반올림으로 인해 계산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II. 내수 및 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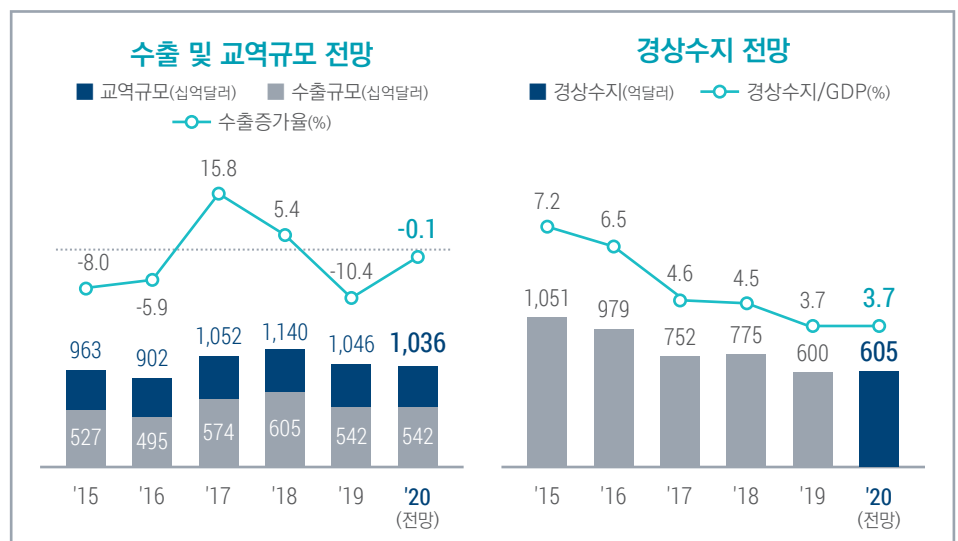
1. 민간소비와 투자

- 2020년 민간소비는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여력 회복이 지연되면서 1.4% 성장에 그칠 전망
- 설비투자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될 전망이나 코로나19의 확산은 신규투자를 지연시켜 1.8% 증가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위축이 지속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2.3% 감소할 전망



2. 수출과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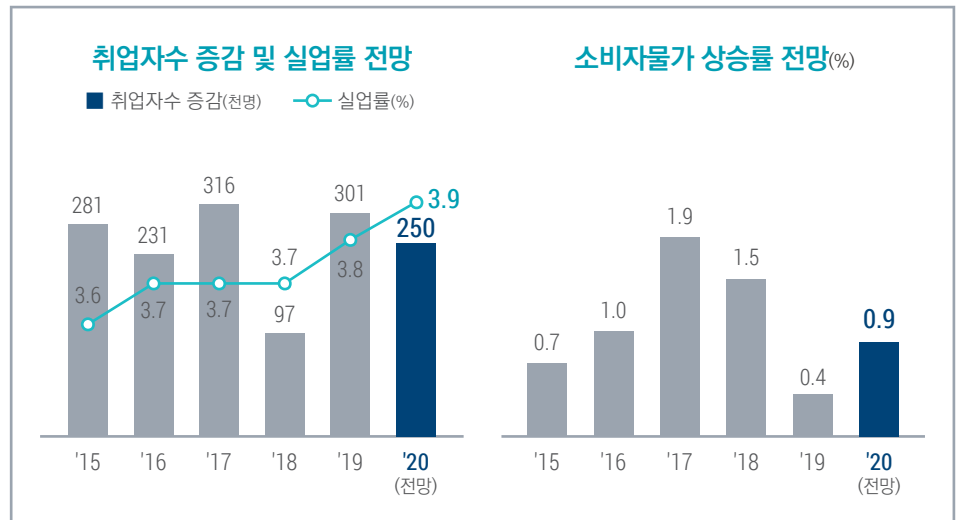
- 2020년 수출(통관기준)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로 회복이 지연되면서 0.1% 감소 전망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늘어나겠으나, 서비스·본원·이전소득 수지 적자폭 확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605억 달러 흑자 전망



Ⅲ. 고용 및 물가, 원/달러 환율 전망

1. 고용 및 물가

- 2020년 노동시장은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보다 둔화된 25만명 수준, 실업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3.9%를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모두 물가상승압력이 약해 0.9% 상승에 그칠 전망



2. 원/달러 환율

- 원/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안정을 되찾는다면 미달러화 약세에 따라 연평균 1,196원 전망

